



김제시 공무원노조, 노인복지센터에 후원금 전달

김제시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최지석)은 지난달 30일 성암노인복지센터와 협약을 맺고 사랑의 후원금 일백만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기부한 후원금은 성암노인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소외계층 어르신께 사용돼달라며 전달했다.

김제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지석)은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으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지닐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경찰서, 교통안전 홍보 활동 전개

정읍경찰서(서장 장명본)는 지난달 30일 썬고을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보행자, 이륜차, 고령자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홍보활동은 보행자, 이륜차, 고령자 교통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시장을 방문한 어르신들에게 홍보용 야광지팡이를 나눠주며 야간에 밝은 옷 입기, 무단횡단 금지와 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걸다)에 대해 집중홍보했다.

장명본 정읍경찰서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소방서, 노인복지센터서 소방안전교육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지난달 31일 섬기는 재가노인복지센터 직원과 회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화재 및 응급처치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한 소화기사용법, 심폐소생술 및 하임리히법, 119신고요령, 질의와 응답 등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론과 병행해 소화기 모형을 직접 사용해보고 심폐소생술·하임리히법 등을 실제상황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했다.

백성기 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제공, 사고 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제공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박순덕 할머니 따뜻한 고향 사랑 '화제'

평생 폐지·강통 등 수집해 모은 1억500만원 정읍 칠보면에 기탁

"평생을 가난과 노동 속에 살아왔지만, 주고 나니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살아온 홀몸 어르신이 평생 모은 돈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박순덕(86) 어르신은 지난달 30일 고향인 칠보면을 방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써달라며 성금 1억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어르신이 평생 폐지와 강통 등을 수집해 알뜰히 모은 돈이다.

평생을 가난과 노동 속에 살아온 할머니에게는 전 재산과도 같은 돈이지만, 선뜻 장학금 기부를 결심하게 된 건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이다.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부모님을 도와 다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던 탓에 차마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박 할머니는 그 시절은 다 그렇게 살았다고 아쉬움을 회고했다.

그러면서 고향의 학생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순덕 할머니는 "평생을 가난과 노동 속에 살아왔지



만, 주고 나니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하다"며 "남은 시간을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 덕유산 문화탐방 실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흥교)은 지난달 31일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와 연계하여 문화탐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곤돌라 체험과 향적봉 트레킹, 목공예 체험, 어사길 걷기 등을 실시하여 코로나19로 답답한 생활을 벗어나 숲을 통한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본 프로그램은 복지관과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가 올 해 협약을 통해 상호 약속한 지역 복지 향상을 실천하기 위해 문화 탐방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였다. 덕유산의 살아있는 공기를 호흡하고 무주의 상징인 주먹과 철쭉을 보며 모처럼 감성에 빠져드는 시간을 가졌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이승찬 소장은 "코로나19로 여행과 외출이 제한되어 동네 밖을 나가기도 힘들었던 장애인에게 우리가 사는 지역의 아름다운 환경과 문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여 자랑스러운 무주를 더욱 잘 알게 하고 삶에 활력을 드리고자 기획을 하였다. 우리 사무소는 계속해서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해왔으니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 이흥교 관장은 "지역 사회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활기찬 복지관, 건강한 복지관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화창한 날씨에 야외 활동의 기회를 주신 사무소 임직원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 세정과, 영농철 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김제시 세정과(과장 김종배)는 최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에 나섰다.

이날 세정과 직원들은 농번기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추 농가를 방문하여 미숙한 손질이 많은 고추 순따기 및 잡초 제거 등 농가일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김종배 과장은 "농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영농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작은 힘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뿌듯하다며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백산면, 인삼농가 찾아 일손돕기 나서

김제시 백산면행정복지센터(면장 이태우)는 지난달 31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산면의 한 인삼농가를 방문하여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날 10여명의 직원은 약 1800평 규모의 인삼밭에서 인삼 적화(꽃 따기)작업과 잡초 제거 작업을 도우며 일손을 보탤다.

인삼 꽃 따기는 인삼의 품질향상을 위해 열매가 맺기 전 제때 제거해 주는 작업으로 열매로 가는 영양분을 막아 품질 좋은 인삼을 수확할 수 있다.

이태우 백산면장은 "직원들과 함께 농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농업인들의 고충을 헤아려 보는 좋은 기회였다"며 "몹시 체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 현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경찰서, 치매노인 구조 경찰관 표창 수여

남원경찰서 이동민 서장은 지난달 30일, 치매노인 구조 유공자 경찰인 도통지구대 경위 신영균과 경위 노진범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을 받은 신 경위와 노 경위는 보행기를 밀며 도로를 걷는 노인이 있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신속하게 출동해 치매노인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인계했다. 특히, 이 사례는 전북경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경찰청 유튜브에 게시되는 등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동민 서장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맑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소방서, 여름철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 대책 추진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는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여름철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추진내용은 △수방정비 일제점검 △기상특보시 상황판단 회의를 통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인명피해우려 지역 및 침수우려지역 순찰 △풍수해 단계별 비상근무체계 가동 및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 등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사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6-240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67
호신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6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